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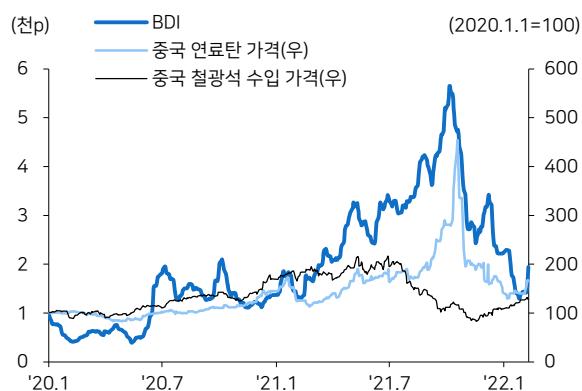
2022. 2. 15 (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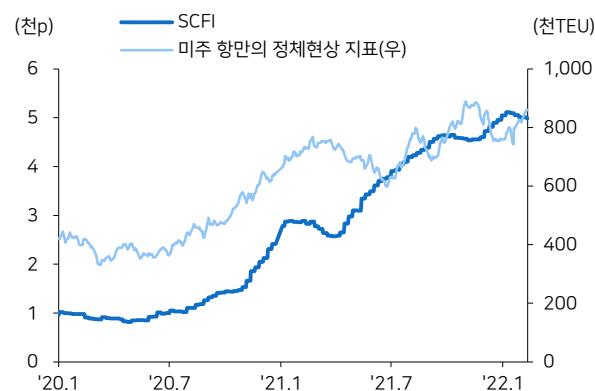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84.0p(+7.0p DoD)



컨테이너운임(SC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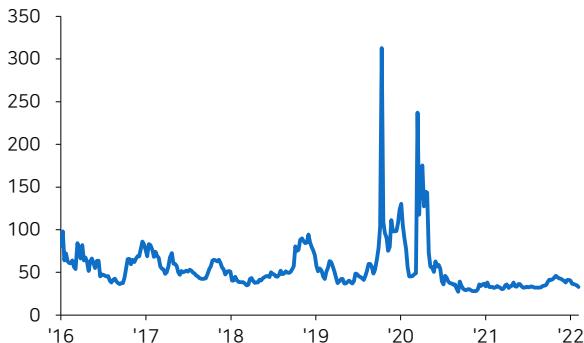
4980.9(-29.1p)



VLCC Spot Rate

32.5(-0.4p WoW)

(WS) VLCC Ear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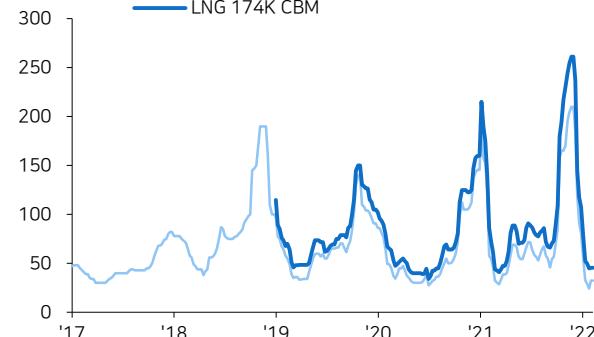


LNG Spot 운임

32.5p(+0p WoW)

45.5p(+0p WoW)

(천달러/일) LNG 160K 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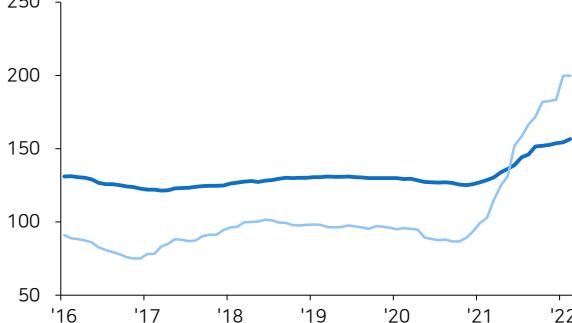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4p(+1.3p WoW)

200.0p(+0.0p WoW)

(p) 신조선가

(p)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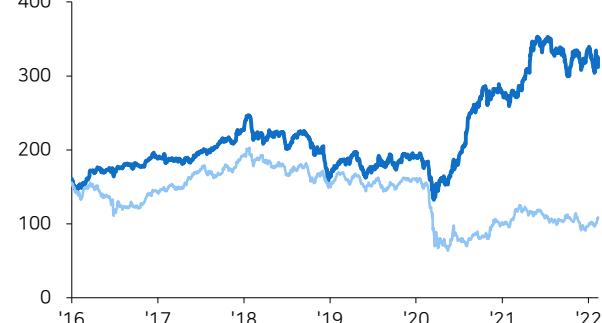
항공화물 처리량

312.1p(-8.7p)

106.8p(-2.0p)

(p) MSCI 항공화물 index

(p) MSCI 여객 Index



주: 컨테이너 운임(SCFI)는 춘절이후 2주만에 업데이트됨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미국, 코로나 이유 '한국 여행금지' 권고…여행경보 최고단계 상향

미국 CDC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 여행금지를 권고했다고 보도됨.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함. CDC의 4단계 분류기준은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500명을 초과 발생한 국가임. (연합뉴스)

일본 '코로나 쇄국' 빗장 푸나…입국규제 완화 검토

일본정부가 입국규제를 오는 3월부터 일부 완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됨. 2021년 11월말 시작된 입국 규제는 2월말까지로 예정되어있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고 유학생·주재원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보도됨. (매일경제)

대한항공 보잉 737-8 출격 '카운트다운'…내달 1일부터 하늘난다

대한항공의 친환경 항공기 737-8이 김포공항에 도착해 3월 1일부터 운항한다고 보도됨. 해당 항공기는 기존 날개보다 공기저항이 적어 연료를 1.8% 추가 절감 가능하다고 보도됨. 대한항공은 2015년 11월 보잉과 2028년까지 737-8기종 3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매일경제)

Increasing US crude production a potential boost for tankers, Poten says

Poten은 아시아향 미국산 원유수송이 늘어나며 미국-아시아 항로에 필요한 VLCC가 중동-아시아 항로에 발표한 VLCC보다 3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함. 글로벌 석유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유가가 상승하며 ExxonMobil과 Chevron은 최근 생산을 25%, 10% 늘린다고 발표함. 미국 EIA는 2022년 미국 산유량이 평균 12mbpd, 2023년 12.6mbpd로 연간 평균치는 최고 수준으로 전망함. (Tradewinds)

Fire hits another Pemex production platform, according to Mexican reports

토요일(12일), 멕시코 국영석유기업 Pemex에 세번째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됨. 지난 2021년 4월, 7월 정제시설이 폭발한 바 있음. Octli platform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Pemex가 생산량 증가를 위해 Fast-track으로 작업하던 지역임. 이번 화재 관련해서 Pemex는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 (Upstream)

Four poised to battle for key Aramco job on world's largest offshore oilfield

Aramco의 세계 최대 유전개발 프로젝트 EPCI에 최대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으로 보도됨. LTA 방식으로 2022년 15억-20억달러 규모 계약으로 보도됨. 입찰 참여업체는 McDermott, Saipem, NPCC, L&T + Subsea7이며, 결과는 한두달 내로 발표될 것으로 보도됨.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